

요한계시록 개요

1. 저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 주셨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봅니다.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에게 태어났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낚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 4:21-22),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였을 때 (마태복음 17: 1-8),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36-46)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남겨두신 빈 무덤을 보았고 (요한복음 20:1-10),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 1-14).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는 자라고 불렀는데 (갈라디아서 2:9),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사도행전 8:15),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 1-14).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처음 순교자가 되었고(사도행전 12:2),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서 모셨고 (요한복음 19:26-27), 주후 60년경에는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2. 목적과 배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갇혀 있던 때가 주후 95-96년경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영원한 왕이라 하고, 로마제국을 영원한 제국이라 불렀고, "황제는

주다”라고 말하게 하며 자신을 우상화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간인 도미티안 황제를 향한 숭배를 거부하였기에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됩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요한계시록 1:10)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요한계시록 1:11)는 음성을 듣고 자신이 본 계시를 적어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잘못된 가르침의 위협에 놓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확신케 하여 신앙에 굳게 서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내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그의 원수들 간에 벌어지는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5: 9-10)
- 2)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들 가운데 계시며 교회들이 겪는 시련을 알고 계시며, 그의 손으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1:12-3:22):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1: 17-18)
- 3) 교회에 대한 박해가 커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죄와 고통으로 물든 옛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19:5-21, 20:7-22:5):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21: 3-4).